

제9호_[마이삭] · 제10호_[하이선] 태풍에 따른 주요 농작물 산지 동향

목 차

1. 기상 현황	1
2. 채소류 산지동향과 수급 전망	2
3. 과일류 산지동향과 수급 전망	5
4. 과채류 산지동향과 수급 전망	10
5. 곡물류 산지동향과 수급 전망	11
참고 1.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15
참고 2. 제10호 태풍 _[하이선] 피해 상황 _[노지채소]	16

□ 제 9호 태풍 마이삭(MAYSACK) 발생과 기상현황

- 8월 28일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
 - 9월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 함흥 동쪽 약 130km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
- 제주와 경남 통영시에 매우 강한 바람, 제주 영실·미시령에 많은 강수량 기록
 - 경남 해안해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였으나, 타 지역에도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 제 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발생과 기상현황

- 9월 1일(화) 괌 북쪽해상에서 발달하여 6~7일 일본 규슈 서쪽해상을 지나 북진
 - 7일 9시경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 13시 30분경 강릉 북쪽을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 21시경 북한 함흥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 제주도 산지 및 해안, 강원 영동, 경상도 지역에 많은 비 기록
 - 6~7일 사이 제주도, 경남 남해안, 동해안 및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70~145km/h(20~40m/s) 기록

그림 1.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이동경로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CK)’>



<2020년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자료: 기상청

배추

□ 피해상황

- 9월 출하 고랭지배추 유실 피해 크지 않았으나, 뿌리 손상 발생
 - 배추 뿌리 생육이 원활하지 못해 결구 지연, 중량 감소
- 준고랭지 2기작 및 가을배추 강원, 경북지역에서 침수 및 유실 피해 발생
 - (준고랭지2기작) 강원지역 7월 하순~8월 상순 정식 배추 중심으로 생육 부진
 - (가을배추) 강원·경북 등을 중심으로 유실 피해 56ha(피해신고 기준)
 - ※ 대부분 지역 9월 상순까지 보식 진행, 최대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피해 크지 않았음

□ 수급영향

- 9월 중·하순 출하 고랭지배추 생육기(7~8월) 긴 장마 영향으로 결구가 원활하지 못했고, 태풍으로 결구가 더 늦어져 수확기 구중 감소 예측
 - 10월부터 주 출하되는 준고랭지2기작 및 가을배추는 잦은 비로 정식이 지연되었고, 태풍 피해도 발생하여 초기 생육 나쁘고, 출하도 늦춰질 전망

그림 2. 고랭지 및 가을배추 태풍 피해 발생 포전

<고랭지배추(태백)>



<가을배추(강릉)>



무

□ 피해상황

- 9월 출하 고랭지무 침수 및 유실 피해 일부 발생하여 생육 지연
 -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병해가 일부 확산되었고, 뿌리 생육이 원활하지 못해 출하가 늦춰질 것으로 파악
- 가을무 강풍으로 인한 뿌리돌림 발생, 월동무는 침수 및 유실 피해
 - 월동무 주산지 제주지역 태풍 발생 이전까지 파종 30% 내외 진행되었고, 태풍으로 침수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하여(파종면적의 50%) 재파종 될 것으로 파악

□ 수급영향

- 9월 중·하순 출하 고랭지무 생육기(7~9월) 잦은 비, 태풍 등으로 생육이 더디 출하지연 예측되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
 - 가을무 잦은 비로 파종이 지연되었고, 태풍 피해도 발생하여 초기 생육 부진
 - 월동무 초기 파종분 태풍 피해 발생했으나, 10월 상순까지 파종 가능

당근

□ 피해상황

- 9월 중·하순 출하 고랭지당근 병해 확산으로 단수 감소폭 확대
 - 부패, 무름병 등이 증가하여 근 비대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가을 및 겨울당근 침수 피해로 초기 생육 부진
 - 겨울당근 주산지 제주지역 파종이 늦은 당근(8월 중순 파종) 중심으로 강풍 및 침수 피해 발생, 전체 면적의 20% 내외 수준
 - ※ 7월 중순~8월 상순에 파종된 당근은 물 빠짐이 원활하여 피해가 적은 것으로 조사

□ 수급영향

- 고랭지당근 작황 피해 확산으로 9~10월 공급 부족 예측
 - 가을당근 7~8월 집중호우로 파종면적 감소했고, 태풍 피해로 초기 생육도 부진하여 수급 여건 악화

양배추

□ 피해상황

- 9월 중·하순 출하 고랭지양배추 품위 저하로 단수 감소폭 확대
 - 부패, 짓무름 등이 확산되어 양배추 구 크기 감소
- 가을 및 겨울양배추 뿌리돌림, 침수 피해로 초기 생육 부진
 - 겨울양배추 주산지 제주 및 호남지역 태풍 발생 이전까지 정식 60% 내외 진행되었고, 태풍으로 평년(70%) 대비 정식 느린 편이며, 피해면적은 정식면적 중 20%

□ 수급영향

- 고랭지양배추 작황 피해 확산으로 9~10월 공급 부족 예측
 - 가을양배추 7~8월 집중호우로 10월 출하면적 감소했고, 태풍 피해로 초기 생육도 부진하여 10월까지 수급 불안 계속될 전망

사과

□ 피해상황

- 태풍으로 인한 사과 낙과 피해면적은 3,367ha(9.9기준 잠정)
 - 전체 사과 재배면적(2020년 기준, 31,601ha)의 11% 피해 발생
 -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두 차례 태풍으로 2,491ha의 피해면적이 발생하였으며, 낙과율은 15% 내외 추정
 - 경남지역(울산광역시 포함)은 433ha의 피해면적 발생, 낙과율 50% 이상 추정
 - 전라도 지역은 181ha의 피해면적 발생, 낙과율 15% 내외 추정
 - 충청도 지역은 28ha의 피해면적 발생, 낙과율 10% 내외 추정

표 2. 태풍에 의한 사과 낙과 피해상황

지역		피해면적	낙과율	비고
경상도	경북	2,491 ha	15% 내외 추정	청송, 안동, 영천, 영덕, 포항 등 태풍 이동경로 인접지역 피해 커
	경남	433 ha	50% 이상 추정	대부분 밀양(400ha)과 울산(20)ha 지역
전라도	전북	44 ha	15% 내외 추정	곡성(81ha), 장성(53ha)
	전남	137 ha		
충청도	충북	26 ha	10% 내외 추정	충주, 영동 등 주산지 낙과피해 미미
	충남	2 ha		

- 품종별로는 추석 출하를 앞둔 홍로의 피해가 가장 크고, 10월 말부터 출하되는 후지도 낙과 피해 발생
 - 낙과 이외에 도복이 일부 발생하였고, 낙과되지 않은 사과의 경우에도 품위 저하(상처과) 예상

□ 수급영향

- 태풍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추석 성수기 출하 공급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
 - 올해 추석 성수기가 전년보다 늦어 홍로 외 중만생종(조숙계후지, 양광, 감홍, 시나노스위트 등) 사과도 출하될 것으로 예상

배

□ 피해상황

- 제8호 태풍(바비)의 영향으로 전남 나주·영암·순천, 전북 김제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낙과 피해 발생
 - 서해안 인접 지역 중 호남지역 재배면적 비중: 전체의 30%(약 3천 ha)
- 제9호(마이삭), 제10호(하이선)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인접 지역인 울산광역시, 경남 진주·하동, 경북 상주 등 영남지역 중심으로 신고 낙과 피해 발생
 - 동해안 인접 지역(경남, 경북, 울산, 강원) 재배면적 비중: 전체의 20%(약 2천 ha)
- 배 낙과 피해면적은 2.1천 ha*로 전체 배 재배면적(2020년 기준, 9천 ha)의 23% 피해 발생(9.9.기준 잠정)

*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의 전체 피해면적임.

표 3. 태풍에 의한 배 피해상황

지역		낙과 피해	비고
경상도	울산	40~50% 수준	- 배 재배면적 가장 많은 울주군 서생면 중심으로 20~90% 낙과 피해 발생 - 현재 남아있는 과에도 태풍으로 상처가 생겨 정품과 비율 크게 낮아질 전망 - 잎사귀가 떨어지는 낙엽 피해도 커 향후 재배에 영향
	상주	10~15% 예상	- 조생종 원황은 수확 마무리, 태풍 전 신고 일부 수확 - 경북 김천에서도 낙과 피해 있었으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음
충청도	하동	15% 내외	조생종인 원황 수확 종료됐으나, 중만생종인 신고 위주로 낙과 피해 발생
	진주	10% 미만	
전라도	나주	10% 내외	봉황면, 금천면 등
	영암	5~10%	신북면 등
	순천	20~35%	낙안면 등(신고 품종 위주)
충청·경기		3% 내외	충남(천안·예산·아산 등), 경기(안성·이천·평택 등)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조사지역 과원간 피해 규모 편차 있으나, 특히 ‘마이삭’으로 인해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의 일부 배 농가는 최대 80~90%까지도 낙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 다만, 저장 배 비중이 높은 중부 지방의 경우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품종별로는 수확을 앞둔 중만생종 신고 품종의 낙과 피해가 가장 크며, 태풍으로 인해 상처과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품위 저하 우려

□ 수급영향

- 생산량 큰 폭의 감소에도 추석 성수기 출하 공급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
 - 올해 늦은 추석 영향으로 추석 성수기에는 적정 숙기를 거친 완숙과 출하 전망
 - 다만, 봄철 저온피해 및 태풍으로 인한 상처과 발생으로 비상품과 비율 높아져 품위간 가격 격차는 클 것으로 전망
- 여름철 장마와 이후 고온다습한 기상 영향으로 병충해 확산 등 향후 생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감귤

□ 피해상황

- 노지온주 낙과나 가지부러짐 등 직접적인 피해 미미
 - 다만 상처과, 병해 발생 등으로 상품성 저하 우려
 - 긴 장마 이후 생리장해(열과·일소 등) 발생
- ‘마이삭’으로 일부 하우스온주 비닐 벗겨짐 피해 발생
 - 외관 품질 저하 우려되나, 착색 및 당도 좋아 전반적인 품질 양호

□ 수급영향

- 9월 출하될 하우스온주는 재배면적 확대와 추석 성수기 대비 출하량 증가로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 착색 및 당산비 등 품질이 양호하고 소비자 선호 높은 규격(2S~M) 출하 비중도 높을 전망
- 노지온주 생육상황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하며, 생산량도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 ※ 잦은 강우 등으로 과실 비대 전년 대비 양호

- 긴 장마 및 태풍으로 일부 타이벡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당도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노지온주 품질은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 큼.

포도

□ 피해상황

- 태풍으로 인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포도 주산지인 경북 지역 일부 비가림 시설에서 비닐 찢어짐 피해 발생
 - 태풍과 동반된 많은 비로 수확을 앞둔 포도에서 열과 발생 증가 우려
 - 장마 이후 발생한 탄저병과 노균병, 갈반병 피해 면적 증가 우려

□ 수급영향

- 9월 캠벨얼리와 거봉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 샤인머스켓 출하량은 증가 전망
 - 생육 부진으로 출하지연 발생, 탄저병·열과 발생 증가 시 단수 감소 우려

복숭아

□ 피해상황

- 제9호 태풍(마이삭) 경북지역 일부 농가에서 낙과 피해 발생
 - 경북지역은 태풍 경로에 위치한 영천과 상주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낙과율은 15% 내외 추정
 - 충북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
 - 금년 복숭아는 8월까지 80% 이상 출하가 완료되었으며, 9월 이후 출하되는 만생종의 주 출하지는 충청과 경북지역

□ 수급영향

- 긴 장마로 낙과 피해가 컸으며, 병 발생 또한 증가하여 출하량 전년 대비 감소

단감

□ 피해상황

- 태풍으로 인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잎 떨어짐과 상처과 발생
 - 상처과 발생 증가로 향후 출하될 단감 외관이 좋지 못하며, 비상품과 비중 증가 전망

□ 수급영향

- 추석 단감 출하는 추석 성수기에 상서, 이두, 송본, 태추 등 조·중생종 품종과 만생종인 부유까지 출하가 가능하여 출하량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상처과 발생 증가로 품위간 가격 편차 클 것으로 전망

□ 피해상황

- (오이·애호박) 주 출하지인 강원(홍천, 화천)과 충청(천안, 진천)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시설파손(찢겨짐, 벗겨짐)은 거의 없으나, 마이삭 영향으로 착과 불량 및 생육 부진
- (풋고추)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음. 호남지역은 일부 하우스 비닐이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수박) 9월 수박 주산지인 충청(음성, 논산, 부여)지역, 호남(고창)지역 태풍 피해는 미미한 수준
 - 경남 함안은 9월 초 정식(12월 출하)한 일부 농가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하우스 비닐이 파손되었으나, 추후 작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파악
- (토마토) 일반토마토 주산지인 강원(철원, 인제, 횡성, 영월 등)지역의 태풍 피해는 거의 없음. 경북 포항에서는 하우스 비닐이 파손(15% 내외)되었으나 긴급복구되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딸기)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7~8월 잦은 비, 고온, 침수(전북 남원, 전남 담양 등) 등으로 딸기 묘 생육이 부진하고 정식 시기 다소 지연

□ 수급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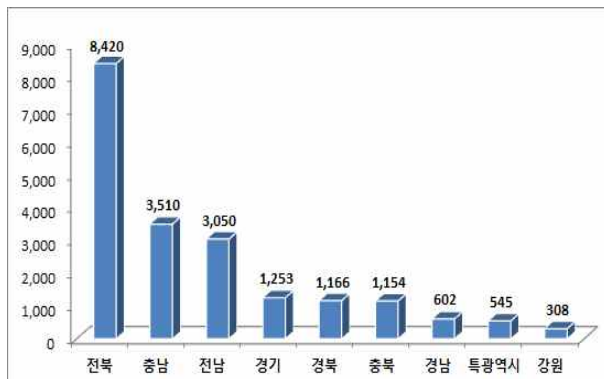
- 과채류의 태풍 피해는 미미하나, 7~8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9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잦은 비로 인해 노지재배 비중이 큰 강원지역의 풋고추·백다다기오이는 수확 작업 차질 발생
 - 오이·애호박은 강풍으로 상처과가 많이 발생하여 품위간 가격차 확대

쌀

□ 피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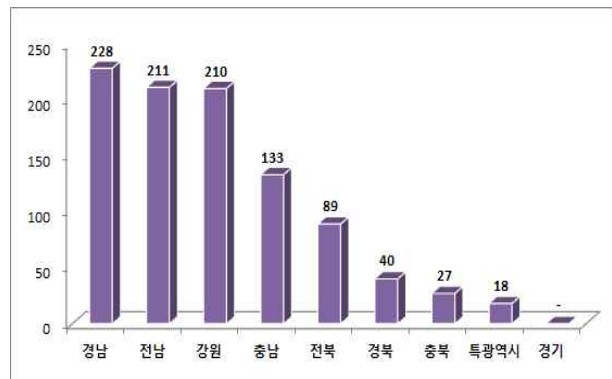
- 8월 말부터 9월 상순까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벼 도복 및 침수 피해 발생
- 9월 8일 기준, 집계된 피해면적은 금년 벼 재배면적(72만 6천ha)의 2.9% 수준인 20,964ha(도복 20,008ha, 침수 956ha)로 파악
 - 전북 피해면적이 8,509ha로 집계되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컸으며, 충남(3,643ha), 전남(3,261ha), 경기(1,253ha), 경북(1,206ha), 충북(1,181ha) 등의 순으로 조사
 - 제8호 태풍 ‘바비’의 경우 서해안 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서해안 인접 지역의 주요 산지 위주로 강풍이 불면서 조생종 중심으로 벼 도복 피해(894ha) 발생
 - ※ 중만생종의 경우 7~8월 잦은 강우로 출수기가 늦어져 등숙 초기 단계라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
 -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도복 피해면적은 14,712ha로, 침수 피해면적은 466ha로 집계되었으며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으로 인해 벼 도복 피해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 ※ 조생종의 경우 등숙 및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중만생종의 경우 출수 이후 유숙기 단계여서 도복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
 -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부산과 울산에 근접한 동해 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영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25미터 이상, 그 외 한반도 전역에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풍이 불었고, 도복(4,402ha) 및 침수(490ha) 피해 발생

그림 3. 권역별 도복 피해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4. 권역별 침수 피해 현황



□ 수급영향

- 조생종은 출수 이전 잦은 강우로 인한 저온 및 일조 부족 등의 영향으로 낫알수가 감소, 출수 이후로도 잦은 강우와 수확기 연이은 태풍으로 도복 피해가 발생하여 전·평년 대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태풍에 대비해 조기 수확한 조생종 벼의 경우에도 도정수율이 65% 내외로 전·평년 대비 낮은 편
 - 조생종 벼의 경우 등숙이 진행되는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이 시작되어 9월 중·하순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확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생육이 회복될 수 있는 기한이 충분치 못해 태풍 등의 피해로 전체적으로 수량 감소 예상
- 중만생종은 출수 이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고, 흑수·백수·수발아 피해까지 예상되나, 벼는 등숙기 기상여건이 수량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저조했던 생육이 일정 정도 회복될 가능성 있음.
 - 2020년 벼 재배면적은 72만 6천ha 수준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에 그쳤으며, 중만생종은 10월 중순 이후 수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수확 이전까지의 기상 상황이 금년 생산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 농진청 벼 생육상황 조사결과(7회, 8.21~8.31일)에 따르면, 기온은 26.7℃로, 평년(24.0)보다 2.7℃ 높았고, 일조시간은 60.8시간으로, 평년(61.2)보다 0.4시간 적었음.
 - ※ 중만생종의 포기당 이삭수는 21.7개로 전·평년보다 0.5~0.9개 많으며, 이삭당 벼알수는 83.5개로 전·평년 대비 각각 3.7개, 1.2개 적은 상황임.

콩

□ 피해상황

-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태풍 이전 장마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7~8월 논콩 침수 피해면적 2,048ha)
 - 8월 중순까지 지속된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경장(원줄기의 지상부에서부터 줄기 생장점까지의 길이)이 짧은 경우가 많고, 습해에 의한 뿌리

썩음병, 역병 등 병해 피해 우려

- 전북 논콩 재배지역 중 일부에서는 강우로 인한 습해로 시들음병이 발생하였고, 밭콩의 경우 불마름병과 세균성 점무늬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

□ 수급영향

- 생장기 일조량 부족으로 경장이 짧고, 개화기 강우로 착해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량은 전년(180kg/10a) 대비 저조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등숙기 기상 상황에 따라 결실률 및 크기가 결정되겠으나, 경장이 전·평년 대비(전년 대비 -21%, 평년 대비 -8%) 짧아 꼬투리가 적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단수는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작황 부진으로 단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단수 감소의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습해에 약한 콩의 특성상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방제작업 필요

감자

□ 피해상황

- 수확기인 고랭지감자는 태풍으로 인한 생육 피해는 없으나, 씨감자 채종포 일부 지역에서 강우로 인한 두둑 유실로 녹화현상 발생 우려
 - 시장출하용 감자는 비닐로 피복되어 있어 두둑 유실로 인한 피해 발생은 거의 없으나, 강우로 수확이 늦어지고 있어 부패가 우려되는 상황
- 가을감자의 경우 제주 일부 지역에서 잎 찢상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내륙 지역은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
 - (제주 가을감자) 빨리 파종했던 감자들은 싹이 발아되어 일부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잎이 찢기는 현상들이 발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파종이 늦었던 경우에는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 피해는 거의 없었으나, 잦은 강우 및 침수로 인해 종서 부패가 우려되는 상황
 - (내륙 가을감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태풍 이전 고온 영향에 더해 태풍 이후 잦은 강우로 종서 부패가 우려되는 상황

□ 수급영향

-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나 장마로 인한 고랭지감자 품위저하 현상과 가을감자 파종지연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됨.
 - 고랭지감자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
 - ※ 고랭지감자 생산량 전망(감자관측 9월호) : (평년) 117,563톤, (2019) 139,676톤 → (2020) 104,925톤
 - 가을감자는 태풍 발생 이전부터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파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중 일부 농가는 감자 파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재배면적은 당초 전망한 수준(2,681ha)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 가을감자 재배면적: (평년) 1,741ha, (2019) 2,390ha

참고 1

제9호, 제10호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제9호 마이삭 피해(잠정)

○ 농작물 23,472ha(낙과 4,076, 도복 15,548, 침수 3,403, 기타 445)

구 분	계	낙과	배	사과	복숭아등	도 복	침수	기타	비 고
계	23,472	4,076	1,556	2,187	333	15,548(836)	3,403	445	
대전	8	2	-	-	2	6(-)	-	-	
광주	8	-	-	-	-	8(-)	-	-	
대구	1	-	-	-	-	1(-)	-	-	
울산	830	490	470	20	-	-	-	340	단감 낙엽 및 파손
부산	54	17	17	-	-	25(-)	12	-	
제주	3,391	-	-	-	-	663(663)	2,728	-	
세종	348	55	50	-	5	289(3)	4	-	
경기	1,264	32	21	7	4	1,232(-)	-	-	평택, 화성, 안성
강원	306	42	20	22	-	110(31)	154	-	강릉, 삼척, 정선
충북	618	64	17	26	21	533(13)	21	-	청주, 충주, 보은
충남	3,136	54	52	2	-	2,956(-)	126	-	당진, 부여, 서산
전북	6,139	105	56	44	5	5,972(1)	62	-	김제, 부안, 정읍, 군산
전남	3,426	914	566	157	191	2,391(31)	16	105	고흥, 나주, 신안
경북	3,030	2,007	180	1,727	100	977(92)	46	-	포항, 상주, 청송, 영덕
경남	913	294	107	182	5	385(2)	234	-	밀양, 고성, 진주

* 도복의 ()는 벼 이외 참깨·옥수수 등이며, 기타는 앞·줄기파손, 염해 등임

□ 제10호 하이선 피해(잠정)

○ 농작물 7,747ha(낙과 1,379, 도복 4,840, 침수 1,522), 전일대비 4,190ha ↑

구 분	계	낙과	배	사과	복숭아 등	도 복	침 수	기타	비 고
계	7,747	1,379	177	1,180	22	4,840(106)	1,522	6	
울산	302	89	87	1	1	195(-)	18	-	
부산	31	4	4	-	-	12(-)	15	-	
경기	40	-	-	-	-	40(-)	-	-	화성, 여주
강원	511	8	3	2	3	248(17)	255	-	강릉, 양양, 고성
충북	84	-	-	-	-	84(-)	-	-	청주, 진천
충남	1,056	14	14	-	-	1,015(-)	27	-	서천, 예산, 논산
전북	2,270	-	-	-	-	2,224(1)	46	-	김제, 부안, 순창
전남	539	3	1	-	2	297(12)	233	6	담양, 신안, 해남
경북	1,433	790	10	764	16	505(71)	138	-	청송, 경주, 안동
경남	714	471	58	413	-	220(5)	23	-	밀양, 고성, 진주
제주	767	-	-	-	-	-	767	-	

* 도복의 ()는 벼 이외 작물, 충북은 '마이삭'부터 누적 집계되어 '하이선' 피해만 발체 조정

참고 2

제10호 태풍(하이선) 피해 상황(노지채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품목	피해종류	피해정도	점검기관
제주 구좌	당근	침수	.침수 : 재배면적의 10% * 마이삭 : 침수, 뿌리 흔들림 10%	구좌농협
제주 성산	월동무	침수	.바람 피해는 없으나 일부 침수 * 마이삭 : 100만평(재파 예정)	성산일출봉 농협
제주 애월	양배추	침수	.침수 : 바람 피해 없고 침수 미미 * 마이삭 : 침수(재배면적의 5%) 생육장애(약 15~20%)	애월농협
전남 해남	가을 배추	피해 없음	발작물 태풍 피해 없음	전남지본
전남 영암	가을무	피해 없음	.발작물피해 없음 * 마이삭 : 발작물 피해 없음, 과수 낙과	신북농협
전북 부안	가을 배추	피해 없음	.작황 피해 없으나 강우로 인한 정식 지연 * 마이삭 : 발작물 피해 없음	변산농협
전북 고창	가을무	피해 없음	.작황 피해 없으나 강우로 인한 정식 지연 * 마이삭 : 발작물 피해 없음	전북지본
강원 강릉	고랭지 배추	생육장애	.생육장애로 인한 품위저하 예상(심각) * 마이삭 : 잎 꺾이고 뿌리 뽑힘, 생육장애	강릉농협
강원 평창	고랭지 배추	생육장애, 토사 유실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심각), 토사 유실(미미) * 마이삭 : 생육장애로 인한 품위저하	대관령원협
강원 태백	고랭지 배추	생육장애, 토사 유실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심각), 토사 유실 * 마이삭 : 생육장애, 토사 유실	태백농협
강원 강릉	고랭지 무	생육장애, 토사 유실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심각), 토사 유실(미미) * 마이삭 : 생육장애, 토사 유실	강릉농협
강원 평창	고랭지 무	생육장애, 토사 유실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 토사 유실(미미) * 마이삭 : 생육장애, 토사 유실	대관령원협
강원 태백	고랭지 무	생육장애, 토사 유실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 토사 유실(미미) * 마이삭 : 생육장애, 토사 유실	태백농협
강원 춘천	가을 배추	침수, 생육장애	.침수 2%,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25%) * 마이삭 : 침수 5%, 생육장애 20%	서춘천농협
강원 홍천	가을무	생육장애	.강우로 인한 생육장애 * 마이삭 : 강우로 인한 생육 장애	내면농협
경북 영양	고추	침수, 낙과, 도복	.발작물 침수 25ha, 낙과, 도복 미미 * 마이삭 : 피해 미미	영양농협